기독교교육논총 제67집 (2021. 9. 30): 229-265
DOI: 10.17968/jcek.2021..67.007

신앙을 가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한 변화와 바람에 관한 질적연구

김성원(총신대학교/조교수)
sungwon1331@gmail.com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앙을 가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한 변화와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탐색하여 교육적 방향을 제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코로나19 시기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 9명과 면담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 어린이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일상의 변화, 학교생활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상의 변화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 사라진 놀이, 여유로운 일상과 무기력함이, 그리고 학교생활의 변화에는 비대면 수업 실시와 다양한 규칙을 요구받음이 포함되었다. 친구·선생님·부모님·형제자매와의 어려움이 대인관계 변화에, 비대면 예배 실시와 가정예배 회복이 신앙생활의 변화에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바람을 분석한 결과, 여행과 놀이의 회복을 포함하는 일상적 바람, 대면 예배로의 복귀·수련회의 회복·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는 신앙에 관한 바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학교생활로 복귀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어린이들의 경험과 바람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보여 준 어린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소통·공동체·즐거움의 요소가 포함된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주제어** 》

코로나19, 신앙, 어린이, 면담, 질적연구

I. 들어가는 말

사람들은 1년하고도 절반이 넘는 시간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코로나19 시기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삶의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고, '뉴노멀(new normal)', '비대면', '거리 두기' 등의 개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이민형, 2021). 강희숙(2021, 116)에 의하면, 코로나 뉴노멀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나타난 사회적 환경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상과 규범 혹은 표준"이라는 의미로, 다음의 4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 온택트 소통 방식(온라인을 통한 소통방식으로 랜선과 줌 문화 형성)의 확대, 거대 정부의 진격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경제적 지원의 다양화, 집콕 문화 및 대안적 생활방식 확산. 구체적인 현상으로 교육계의 온라인 개학과 직장의 재택근무 등이 실시되었고(이은경, 2020), 종교계에서는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많은 종교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다(이민형, 2021). 비대면 예배의 시도와 함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뉴노멀이 되었다(이은경, 2020).

코로나와 같은 재난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데(김경희, 2021), 특별히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영양, 문화와 여가활동, 심리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Kousky, 2016; 정익중·이수진·강희주, 2020에서 재인용).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김경희, 2021; 김현수, 2021, 41-48; 정익중·이수진·강희주, 2020; 주석진, 2021; 하지현, 2021, 44-46), 어린이들은 코로나19 시기에 학업, 신체, 정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에 어린이들이 경험한 어려움이 다양하고 그 영향력이 큰 것과 유사한 원리로 교회 부서 중 주일학교가 가장 심각한 손상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박성환, 2021) 기독교교육자들에게 자극과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려움이 예견되는 코로나19 시

기 어린이들의 변화된 삶과 바람에 대해 듣고 분석하여 기독교교육에 관련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COVID19와 어린이

코로나19는 현대인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개학 및 비대면 수업을 경험했고 등교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어린이들의 삶이 무너져가게 되었다. 돌봄의 부재, 학력 격차, 우울, 비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김경희, 2021). 김현수(2021, 12-83)는 코로나19 시기 어린이들의 경험을 단절의 트라우마(사라진 새 학기), 규칙 트라우마(무한 반복 도돌이표 잔소리), 일상 유지 트라우마(혼자는 어려워), 결손 트라우마(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중독 트라우마의 5가지로 소개하였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트라우마라는 심리적 상처로 나타나 어린이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발발하자 교육부는 3차례 학교 등교를 연기하면서 유례가 없는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였다.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 약 한 달간 EBS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용되었고 이는 점차 교사 주도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다(김경희, 2021).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은 기존의 교육환경과 다른 학습 장소, 학습 시간, 학습 방법, 학습 여건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다(박완성·박종환·임영미, 2021). 학교의 폐쇄로 어린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학습이 아니라 관계였다. 학교가 폐쇄되고 정지됨으로서 어린이들은 많은 기회와 경험,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친구를 잃었다. 사회적 경험의 부재, 관계의 결핍은 더 큰 상실이고 장기적 영향을 미칠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김현수, 2021, 71). 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어린이의 일상 변화와 균열이 심각해졌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일상 격차가 크게 났으며 외벌이 가정이면서

부부 갈등이 있는 가정의 경우 높은 아동학대 가능성 있음이 보고되었다(정익중·이수진·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도전과 위기는 신앙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기독교는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고, 모든 예배의 온라인 예배화라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이은경, 2020). 현 상황은 신앙교육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유선희, 2020; 이정관, 2020). 코로나19를 지나는 현 시점과 그 이후의 신앙교육은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교사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주일 중심에서 일상 중심으로의 변화가 요청된다(유선희, 2020).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경험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이정관, 2020).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와 신앙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과 제안을 다루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고 일반 학문에서도 주로 어린이의 학습 경험에 집중된 그리고 설문을 통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실정이기에 어린이가 경험하고 느끼는 바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가까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자들의 제언과 연구동향, 그리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읽을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기간에 겪은 경험과 바람을 탐색함으로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앙을 가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한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신앙을 가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갖게 된 바람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론

1. 연구참여자

1) 연구자

본 연구자는 올해 5월 5일 99회 어린이날 기념으로 진행된 「더 라이브」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성장학교 별(프레네스쿨)의 교장이며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장인 김현수 교수가 출연하여 “14살 된 아이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 있냐고 묻는 어른은 왜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아울러 그는 “어린이가 힘든 것에 대해 알아주는 어른이 없다. 화가 난다. 힘든 것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을 계기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코로나19 시기 교회교육에 헌신한 교회들의 현황과 프로그램을 분석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본 연구자는 위기의 시기 가운데서 교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습자들의 필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어린이 9명이다. 연구참여자는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 또는 4학년 어린이로, 눈덩이 표집법으로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1, 7번은 연구자가 영·유아부 사역자로 섬기던 시기에 가르친 제자였고, 연구참여자 8, 9번은 눈덩이 표집법으로 추천받은 어린이, 나머지는 지인의 추천으로 소개받은 참여자들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이 3명, 4학년이 6명이었고 성별은 남아가 5명, 여아가 4명이었으며 상세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생년월일	성별	가족	신앙	교회	학교 유형
1	11년 01월	남	부모님	모태신앙	서초구 N교회	기독교 대안학교
2	11년 02월	남	부모님	모태신앙	동작구 O교회	공립학교
3	11년 02월	여	부모님, 남동생	모태신앙	경기도 A교회	공립학교
4	11년 03월	여	부모님, 언니	모태신앙	동작구 D교회	공립학교
5	11년 11월	여	부모님, 언니, 오빠, 동생, 고모	모태신앙	송파구 S교회	공립학교
6	11년 11월	여	부모님, 남동생	모태신앙	송파구 S교회	공립학교
7	12년 04월	남	부모님, 여동생	모태신앙	서초구 J교회	공립학교
8	12년 06월	남	부모님, 여동생	모태신앙	서초구 N교회	공립학교
9	12년 08월	남	부모님	모태신앙	서초구 J교회	기독교 사립학교

*연구참여자 7과 9번은 대면 면담이 부끄럽다고 하여 줌(ZOOM)으로 면담을 진행하 였음

2. 연구방법

1) 면담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면담법을 사용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면담법은 코로나19 시기 어린이들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방법으로(박완성·박종환·임영미, 2021) 선행연구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의 신앙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바 있다(김성원, 2020; 장화선, 1999; 장화선, 2002).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의 다양한 전통 중에서 인간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에 속한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다수의 연구대상을 표집하거나 일반화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 대신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심도있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질적연구의 이와 같은 특징이 반영되어 본 연구에서도 코로나19라는 재난 시기를 보내는 어린이들의 경험과 바람이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전해졌으리라 기대된다.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자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여 연구문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9개의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후에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기독교교육과 교수와 20년 이상 교회교육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기독교교육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역자에게 검토받는 과정에서 5번 문항을 수정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시기 학교생활을 그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② 코로나19 시기에 친구들이나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③ 요즘 집에서는 무엇을 하며 지내요? (예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이예요?)
④ 가족과의 관계는 어때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⑤ 코로나19 시기에 교회에서 한 것 중에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일은 무엇이예요? 못 해서 아쉽거나 그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⑥ 코로나가 신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⑦ 코로나19 시기와 그 이후에 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⑧ 코로나19에 대해 마음이 어때요?
⑨ 코로나19가 끝나면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와 어머니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졌고 대면 면담을 원칙으로 하였다. 면담은 5월 8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시행되었고 소요시간은 32분에서 1시간 2분 사이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고 전사한 후 질적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의 첫 단계에서 자료의 총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자료와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가 묘사하는 상황에 대한 대략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주제에 맞추어 다양한 의미 단위로 구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앞 단계의 의미 단위를 상식적인 언어를 활용하여 의미범주를 생성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의미 단위들을 구조로 통합하여 기술

하는 과정을 거쳤다.

3)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결과에 대해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과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의 연구윤리를 확보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한 참여자 확인법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귀환하여 연구 수행 당시 자신의 견해를 바르게 표현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8로부터 “현장예배 나가니까 집중도 잘 되고 설교도 적어요”를 “현장예배 나가니까 설교도 재미있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받았다. 아울러 연구문제와 인터뷰 질문 작성 시 도움을 제공한 박사님 한 명으로부터 동료 검토를 받았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 중의 하나가 연구자의 견해인데(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21, 402), 연구자는 코로나19와 어린이에 관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집필한 도서 2권과 학술지 여러 편을 읽음으로써 연구주제와 내용에 대한 이론적 틀을 형성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코로나19 시기 경험에 관해 면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한 변화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사라진 놀이·여유로운 일상과 무기력함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변화, 비대면 수업 실시와 많아진 규칙과 제약을 포함하는 학교생활의 변화, 친구·선생님·부모님·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려워진 대인관계의 변화, 비대면 예배 실시와 가정예배 실천을 포함하는 신앙의 변화,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 어린이들의 바람은 여행과 놀이의 회복을 포함하는 일상에 관한 바람, 대면 수업으로 복귀

를 희망하는 학교에 관한 바람, 그리고 대면 예배로 복귀·수련회 회복·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신앙에 관한 바람 등이었다. 면담을 통해 도출된 개념과 이를 구분한 범주는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내용 범주화

카테고리	범주	하위범주	개념
변화	일상의 변화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QR코드 및 손소독제 사용의 불편함; 급식실 칸막이; 기상 시 건강 체크
		사라진 놀이	·친구와의 놀이 불가; 방과 후 즉시 귀가; 비접촉 상호작용; 거리감 형성
		여유로운 일상과 무기력함	·여유 있는 일상; 등하교 시간 절약 ·뒤죽박죽 된 일상; 집중, 자기 훈련의 어려움; 과업수행의 어려움; 성취도 하락
	학교생활의 변화	비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실시; 끊어지고 느리게 전송되는 줌 수업; 집중의 어려움; 이해의 어려움; 눈이 나빠짐
		많은 규칙, 제약	·쉬는 시간 간식 금지; 식사 시간 대화 금지; 거리 두기; 시간 내 영상 수업 듣기 ·체육수업의 한계; 질문을 적게 하시는 선생님; 방과 후 수업 신청 및 내용의 제약
	대인관계의 변화	친구 사귐의 어려움	·칸막이 설치; 사라진 짝꿍; 예민해진 친구들; 친구와 접촉 금지; 마스크 사용으로 얼굴 확인 어려움
		선생님의 규칙	·많은 규칙을 제시, 확인, 경고하시는 선생님; 예전처럼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 선생님
		부모님의 잔소리	·반복적 지시와 지적을 하시는 엄마; 자주 혼내시는 엄마; 스트레스를 주거나 짜증나게 하시는 엄마
		형제와의 갈등	·화나게 하는 형제; 형제와 잦은 싸움; 더욱 친밀해진 형제와의 관계
	신앙생활의 변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실시; 집중력이 떨어지는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선호함
		가정예배	·가정예배의 회복; 정기적으로 가정예배 드리기
	감정의 변화	부정적인 감정	·답답함; 짜증남; 분노; 속상함; 참음
바람	일상에 관한 바람	여행 가기	·마스크 안 쓰는 여행; 가족 여행; 해외여행 금지령
		놀이의 회복	·놀이동산; 수영; 친구와의 놀이; 부모님과 특별활동
	학교에	대면 수업	·반응이 빠른 대면 수업으로 복귀; 성취도가 있는 대면 수

카테고리	범주	하위범주	개념
	관한 바람	복귀	업으로 복귀
	신앙에 관한 바람	대면예배 복귀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로 복귀; 친구들과 함께 대면 예배로 복귀
		수련회 회복	·함께 하는 수련회 회복; 집을 떠나서 외박하는 수련회 회복; 영적 유익이 있는 수련회 회복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교회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 지금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

1. 어린이들이 경험한 변화

1) 일상의 변화

(1)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 “코로나19는 무서워!”

어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마스크 착용(연구참여자 1, 7, 9), 체온 측정, QR코드 스캔, 손소독제 사용(연구참여자 1), 급식 칸막이 사용(연구참여자 9), 손 씻기(연구참여자 2) 등-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시도들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불편하다는 견해를 비추었다. 기상 후에 건강 체크를 하고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의 소개와 실행 여부를 담임선생님께서 확인하신다는 내용도 있었다.

> 자유롭지 못해요. (Q 뭐가 자유롭지 못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딜 가나 온도 체크, 손 소독제, 큐알 코드 해야 하는 것이요.
>
> (연구참여자 1)

> 마스크를 껴야 하고 급식실에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마스크 쓰기 너무 답답해요. 제 귀에 마스크 줄이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9)

> 아빠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조심해요... 아빠는 원래 손을 안 씻고 저랑 스킨십

> 을 하고 안고 그랬는데 이제 무조건 손 소독하고 손 씻고 스킨십을 해요. (연구참여자 2)

> 원래 7시에 일어나서 책을 봤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 체크를 해야 해요. (Q 건강 체크는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면 선생님께서 무슨 일 있나고 물어보세요. 학교에 제출해야 해요. (연구참여자 2)

(2) 사라진 놀이: "내 친구 놀이는 어디에?"

코로나19 시기의 변화에 대해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연구참여자 1, 3, 4, 5, 6, 9) 언급한 내용 중의 하나는 놀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사라진 놀이와 관련하여 '힘들어요', '속상해요', '심심해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등의 마음도 표현하였다. 놀이는 놀이 자체의 즐거움과 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 및 사회성 발달의 지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등의 다양한 부작용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원래 오빠랑 오빠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면 학교 놀이터에서 4시 정도까지 노는데 요즘은 못 해요. (연구참여자 5)

> 예전에는 친구들과 서로 접촉하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접촉을 할 수 없는 것이 달라요. (연구참여자 6)

> 같이 많이 못 노니까 놀았을 때에 거리감이 느껴지고 (연구참여자 4)

> 집에서 친구들하고 못 노는 것, 밖에서 같이 못 노는 것이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9)

> 친구들 못 만나고, 사람들 못 만나고,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같이 만나서 못 놀아서 속상해요. (연구참여자 1)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친구와의 놀이가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형제 자매가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동생이나 오빠와 놀이를 한다고 언

급하였다.

> 혼자하는 게임도 하고 동생이랑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 (연구참여자 3)

> 학교 끝나면 조금 놀다가 학습지 하고 게임하고서 동생이랑 오빠랑 같이 놀아요. 언니랑은 놀 시간이 없고.. (Q: 언니와는 놀 시간이 없다고요?) 네~ 중 2라서.. (연구참여자 5)

(3) 여유로운 일상과 무기력함: "난 무얼 했지?"

어린이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하면서 동시에 무기력함을 호소하였다. 두 명의 참여자(연구참여자 3, 4)가 여유로운 일상과 무기력함을 동시에 언급한 점은 독특한 부분인 듯 싶었다.

> 엄마 아빠 출근하고 혼자 있는 시간 조금 있어요. 학교 안 가고 일찍 일찍 들어오니까 머리 속에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연구참여자 3)

> 널널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4)

>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연구참여자 5)

어린이들이 언급한 무기력함에는 일상의 습관(routine)이 깨진 점(연구참여자 6), 집중 또는 스스로의 훈련(self-discipline)이 안 되어 원래 잘 하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황과 능력의 변화(연구참여자 2, 3, 4), 마음의 공허함(연구참여자 3) 등이 포함되었다.

> 코로나 때문에 원래 생활했던 게 뒤죽박죽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6)

> 온라인 수업을 받다 보면 일어나기 힘들고 졸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숙제를 미루게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 집에 혼자 있는 건 무섭지 않은데 공허해요. 똑같은 걸 해도 뭔가 되게

스산하고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3)

작년에는 일 년 동안 방학이었던 거에요 특히 1학기는 진짜 방학이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줌 수업이 체계적으로 되었지만,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도 튕겨지고 잘 안 됐어요. 수행평가 하나도 못 보고..

(연구참여자 3)

일상의 변화 중 '기타'에는 살이 쪘음과 시력이 나빠진 건강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살이 엄청 찐 거 같아요. (Q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서요. 집에만 있어서요"(연구참여자 1), "줌 수업을 3시간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졌어요"(연구참여자 7).

2) 학교생활의 변화

(1) 비대면 수업의 실시: "줌 켜세요."

코로나19 시기의 변화에 대해 질문했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연구참여자 1, 2, 3, 4, 5, 7)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 줌 수업)을 언급하였다. 비대면 수업의 도입 및 활용 뿐 아니라 부작용까지 언급하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비대면 수업의 부정적 측면은 전송이 느림(연구참여자 7), 집중/이해가 어려움(연구참여자 1, 4), 숙제를 하기 어려움(연구참여자 2), 눈이 나빠짐(연구참여자 7) 등이다.

월요일 수요일에는 줌으로 해요. 그리고 체육도 학교 가서 한 번 하고 줌으로 한 번 해요. (연구참여자 5)

원래는 매일매일 갔는데 이제는 줌 미팅으로 수업을 받고..

(연구참여자 6)

0.4초 느려요. 말하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0.4초 느리게 가요.

(연구참여자 7)

> 그렇게 싫진 않지만 어쩔 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끊길 때도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연구참여자 1)

> 숙제를 안 해오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숙제가 좀 복잡한 데다가 어떤 애들은 컴퓨터를 많이 안 써 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몰라서 숙제를 못 봐요. (연구참여자 2)

> 코로나 없을 때는 학교에 매일 가서 전자기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줌 수업을 3시간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졌어요. (연구참여자 7)

(2) 많은 규칙: "That's a warning!"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규칙을 언급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추가된 규칙으로 급식 칸막이 사용(연구참여자 1, 5), 식사 시 대화 금지(연구참여자 1, 4, 6), 정해진 자리에서 식사하기(연구참여자 1), 쉬는 시간에 간식 섭취 금지(연구참여자 1), 거리 두기(연구참여자 2), 손 소독하기(연구참여자 2), 동영상 강의 시간 내 듣기(연구참여자 3) 등이 언급되었다.

> 정해진 자리에서 먹어야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못해요. (Q 그럼 선생님이 경고하셔요? 네! 경고하세요. (Q 뭐라고 하셔요?) 댓츠 어 워닝이요. (연구참여자 1)

> [선생님께서] 말할 거면 마스크를 쓰고 말하라고, 되도록이면 말하지는 말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으라고 하세요. (연구참여자 6)

> 친구들이랑 놀 때 거리 두기 안 하면 선생님이 "거리 두기 합시다. 거리 두기 안 하면 같이 못 놀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실 들어올 때마다 손 소독을 하라고 하세요. (연구참여자 2)

> 동영상 수업 2시 30분이나 3시까지 안 들으면 선생님께서 전화하세요. 선생님께서 몇 프로까지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그날 전화가 와요. (연구참여자 3)

언급된 규칙 외에도 학교생활 중의 제약도 언급되었다. 다양한 규칙과

제약은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제약에는 신체접촉이 없는 제한된 체육 활동(연구참여자 6), 줄어든 질문(연구참여자 6), 제한된 방과 후 수업 신청과 활동(연구참여자 5) 등이 있었다.

> 예전에는 체육시간에 피구 같은 접촉 놀이를 했는데 지금은 가위바위보 같은 접촉이 없는 것 위주로.. (연구참여자 6)

> 예전에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질문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마스크 때문에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질문도 거의 안 하세요. 언제는 선생님이 마이크까지 쓴 적이 있으세요. (연구참여자 6).

> 방과 후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신청했었는데 못 한대요... 전에는 거기서[방과 후 수업에서] 쉬기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도 가끔 했었는데 요즘은 배우고 만들기를 하거나 수업 진도만 나가고 얘기를 못해요. (연구참여자 5)

3) 대인관계의 변화

(1) 친구 사귐의 어려움: "친구야, 함께 놀~자!"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로 인해 마음이 힘들다는 반응은 많은 연구참여자들이(연구참여자 1, 2, 4, 5, 6, 8, 9) 언급한 내용이다.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원인은 위생에 예민함(연구참여자 2), 칸막이가 있고 짝궁이 없는 상황(연구참여자 5, 8), 마스크로 인해 친구 얼굴을 보기 어려움(연구참여자 6) 등이다.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음은 놀이를 함께 할 수 없음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연결은 "학교 친구는 친하게 안 되고 많이 못 노니까 거리감 느껴지고.."(연구참여자 4) 그리고 "친구 관계는 똑같은 거 같아요... 오늘도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랑 함께 놀았어요. (Q 어디에서 놀았어요?) 이촌동 한강공원이요" (연구참여자 7) 라는 반응에서 유추할 수 있다.

> (Q 반에서 2명만 사귀었다는 말이죠? 줌으로요?) 아뇨. 줌에서 아니고 학교에서 대면으로 만났을 때요. (Q 요즘은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가 봐

요.) 네! 그게 칸막이도 있고 짝꿍이 없으니까요. (연구참여자 5)

코로나 전과 달라진 것은 옛날에는 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떨어져 앉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8).

친구들은 신경이 약간 예민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약간이라도 내려가서 '코스크' 된 애들 있으면 '야 마스크 똑바로 써!'라고 하고요. 방역 수칙에 굉장히 예민해요. 놀 때도 거리 두기 안 하면,.
(연구참여자 2)

예전에는 서로 신체접촉으로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 얼굴도 잘 몰라요. 코까지 마스크 껴서 눈만 봐 가지고..
(연구참여자 6)

(2) 거리감이 느껴지는 선생님: "말하지 마세요!", "거리 두기 하세요!"

어린이들은 선생님께서 예전에 비해 규칙을 많이 주시고(연구참여자 1, 2, 4, 6) 이로 인해 어색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연구참여자 1, 4) 표현하였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놀이와 연관된 개념이라면, 선생님과의 관계는 규칙과 연관되었음이 발견되었다.

전에는 규칙이 적었는데 규칙이 훨씬 더 많아지고 원래 알고 있던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으니까 지키기 어려운 거죠. (Q 그럼 규칙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연구참여자 2)

완전 말 못하게 앞에는 가림막 있고 옆에 다 건너뛰어 있고 선생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말을 한 세 마디만 해도 선생님이 오세요. 말하지 말라고..
(연구참여자 4)

(Q 지적하시니까 선생님과의 관계도 불편하겠네요?) 네! 조금 그래요. 다른 아이들 어깨동무하고 다니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래요.
(연구참여자 4)

> 수업시간에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 떠드는 애들한테는 목소리를 크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잘 안 나오세요. (연구참여자 6)

> 교회/학교 선생님 좋은데, 예전에는 친구 같은 느낌 들었는데 지금은 좋은 선생님 같아요. (연구참여자 4)

(3)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부모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린이들은 코로나19 시기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갈등의 원인은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거나 수행 여부를 확인하거나(연구참여자 3, 9) 잘못에 대해 혼내시기 때문이었고(연구참여자 3, 7, 8), 어린이들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참여자 3, 9).

> 예배드리면서 엄마가 쓰라는 거 그거[설교노트] 있는데, 그것 쓰기가 좀 귀찮아요. (연구참여자 9)

> 계속 확인을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되고, 수업 들으면 쉬는 시간도 필요한데 엄마는 계속 "이건 다했니?" "저거 다했니?" 하니까 저는 짜증나고.. 숙제는 다 했는데 핸드폰 보고 노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연구참여자 3)

> 방 많이 어지르고 안 치우거나 엄청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날 때가 많아요. 혼날 때도 많지만 말 잘 들어서 칭찬받을 때도 많아요. (연구참여자 8)

> 집중이 안 되니까 예배가 좀 더 엉망이 되고 뭔가 엄마한테 혼나는 일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7)

(4) 형제와의 갈등: "동생 때문에 괴로워요!"

인간관계의 다른 범주는 형제와의 갈등이었다. 어린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형제자매와 빈번하게 싸우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9명의 연구참여자 중 형제자매가 있는 어린이는 여섯 명이었는데 이 중 네

명이(연구참여자 4, 5, 6, 8)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 언니와 자주 싸우지만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4)

> 숙제하고 말을 잘 들으면 게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요, 동생과 많이 싸워서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6)

> 단비가 자꾸 맨날 나를 괴롭혀요. 단비가 잘못해서 싸울 때도 있고, 제가 잘못해서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탓이오" 이래요. (Q 그런 말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엄마요. (연구참여자 8)

4) 신앙에 관한 변화

(1) 비대면(영상, 줌) 예배의 실시: "전도사님, 이번 주도 화면을 통해 뵙네요."

신앙과 관련된 질문에 어린이들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아쉬움과(연구참여자 1, 4, 9) 집중이 안 된다는 문제점(연구참여자 3, 5, 7, 8)을 언급하였다.

>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직접 교회 갈 수 없어서 속상하고요. 코로나가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 예전에는 맨날 주일날 가서 힘들었는데 코로나라서 줌 예배 하잖아요? 좀 더 집중이 되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가는 과정이 없어서 그나마 덜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7)

> 온라인 예배는 집중이 잘 안 되어요. 3월부터 현장 예배 시작했는데 현장 예배 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현장 예배 나가니까 설교도 재미있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8)

> 목사님과 대면 예배를 지금처럼 드릴 때는 목사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니까 집중 안 하는 아이가 있으면 "누구야 집중하자~ 자, 집중해서 말씀 들어보자~ 찬양 크게 부르자~" 집에서 드리면 왠지 모르게 집중이 안 돼요. 조금만 눈 돌리면 만화책 있고, 장난감 있고, 컴퓨터 있

> 고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집중 못 하고 존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거에요. (연구참여자 3)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부모님의 판단과 직업의 특수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친구들이 [교회 오는 것을] 무서워해요. 부모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연구참여자 2)

>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드린 적이 두세 번인데 동생이랑 아빠랑 저 이렇게요. 엄마랑은 한 번인데, 엄마는 병원에서 못 가게 해요. (연구참여자 6)

⑵ 가정예배 드리기: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코로나19 시기의 신앙 특징 중의 하나는 정기적인 가정예배 드리기이다. 가정의 신앙교육 우선권과 책임, 특별히 코로나19 동안 가정예배와 신앙의 주도권 회복은 기독교 교육자들이 제안하는 교회교육의 중요 방향 중 하나인데, 이 시기에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변화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 우리 가족은 요즘 다시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에 가정예배를 드려요. (연구참여자 8)

> (Q **는 초등부 예배만 드려요?) 저녁예배 때는 가족이 같이 드려요. 가정예배처럼요. (연구참여자 4)

> 가정예배를 매일 드려요. (Q 원래는 매일 드리지는 않았어요?) 네! 어쩌다 한번 드렸었어요. (연구참여자 1)

신앙적 변화 ‘기타’에는 실천되지 못한 프로그램(연구참여자 3, 5, 9)과 온라인 프로그램의 한계(연구참여자 8, 9) 등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작

년에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행사가 없었어요”(연구참여자 3)와 “어와나는 줌으로 하죠... 오프라인으로 하면 진짜 뛰어노는 게임을 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스택스[컵을 쌓는 활동] 같은 게임을 해요”(연구참여자 8)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어린이들은 신앙와 관련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연구참여자 2, 4, 8).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배 준비를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연구참여자 2), “저는 지금 아주 많이 만족해요. (Q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지요?) 코로나여서 못할 수도 있는데 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연구참여자 4), “어와나에서 뛰어노는 것이 코로나 전에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8). 교회와 신앙활동에 관한 긍정적인 반응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마음이 짜증과 분노인 것과 대조되는 현상으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애정과 신앙에 기초한 성품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5) 감정의 변화: “화난다, 짜증 난다, 참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변화를 겪은 어린이들의 감정에 대해 질문하였더니, 여러 연구참여자들이(연구참여자 1, 2, 3, 4, 5, 7) ‘짜증 난다’, ‘답답하다’, ‘화가 난다’, ‘참고 있다’, ‘속상하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무섭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본 연구의 시발점이 된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에서 언급되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점은 어린이를 돕는 성인과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 솔직히 진짜 짜증 나요. 세상 있는 악감정을 다 모아놓은 느낌이예요... 정상적인 생활 안되고 친구랑 놀 수도 없고 잘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조금 공포감도 생기구요. 사람 많은데 가면 ‘저 사람이 확진자이면 어떡하지?’, ‘열이 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3)

답답해요. (무엇이 답답해요? 마음이 아니면 마스크가 답답해요?) 다 답답해요.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해요. (연구참여자 1)

코로나에 화가 나요. 코로나가 사람은 아니지만 코로나에 화가 나고 사람이라면 확 쳐버리고 싶고 한데.. (연구참여자 2)

약간 가끔씩 오빠가 얄미운 짓 할 때 억누르던 마음을 이렇게 때리고 싶은데 코로나도.. (연구참여자 5)

작년까지는 학교 안 가니까 노는 거니까 좀 좋네 그랬는데 10월 되니까 '나 어떡하지?' '나 이번 학기 도대체 뭘 한 거지?' '나 이번 학기에 한 게 있나?' 학원도 다 멈추고 학교도 안 가고.. 코로나가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3)

2. 어린이들의 바람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어린이들이 가지게 된 바람에 대해 질문하였다. 코로나19 시기의 변화의 하위 유목 중 일부인 일상생활, 학교생활, 신앙에 관한 바람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1) 일상에 관한 바람

(1) 여행에 대한 목마름: "떠나고 싶어라~"

코로나19가 끝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연구참여자 1, 2, 3, 5, 6, 7, 8, 9) 여행을 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의 전염력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여행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였고, 어린이들은 이러한 국가 방침에 따라 여행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4번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가 여행을 언급한 것은 여행의 보편성과 선호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스크 쓰지 않고 여행 가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

여행도 가고 싶어요. 저 해외여행 좋아하거든요. 엄마 아빠랑 가족여행. 친구들이랑 가도 좋아요. (연구참여자 2)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더 가고 싶어져요. (연구참여자 3)

코로나 없었을 때는 다른 나라도 갔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나와서 주로 못 갔던 것 같아요. (Q 확진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비행기 같이 타고 다니면.. (연구참여자 9)

(2) 놀이에 대한 목마름: "놀이야, 많이 그립다~"

어린이들(연구참여자 2, 4, 5, 6, 8, 9)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놀고 싶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다.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놀이의 종류에는 놀이동산(연구참여자 5), 낚시하기나 자전거 타기(연구참여자 2), 수영장(연구참여자 6, 8, 9) 등이 언급되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Q 요즘 그것도 못 해요?) 네~ 놀이동산 자체를 못 가요. 그리고 롯데월드 가면 롤러 타는 게 있는데 그것도 타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5)

아빠랑 원래 일요일 되면 어디를 좀 놀러 가는 데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낚시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면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2)

코로나 끝나면 친구네도 놀러 가고 싶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수영도 배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8)

코로나 끝나면 수영장도 가고 친구들이랑 집에서 모여서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9)

2) 학교생활에 대한 바람: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어라~"

코로나19 이전의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이(연구참여자

3, 7) 있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일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를 원하는 이유는 대면하면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함과 학습능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말할 수 있어”라고 말한 어린이(연구참여자 7)는 비대면 수업의 어려움으로 0.4초가 느리다고 말했던 어린이로 느린 전달의 불편함을 동일하게 제시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 대면 수업을 하고 싶어요. 전에 8-9살 때는 대면 수업으로 했거든요. 못 만나서 줌 수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면 수업이 더 좋아요. (Q 대면 수업하면 뭐가 좋아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7)

>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학교에 안 가니까 뭔가를 해 내는 것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코로나에 걸릴까봐 무섭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 받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3)

3) 신앙생활에 대한 바람

(1) 대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라~”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대면 예배 복귀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이(연구참여자 1, 2, 4, 5) 있었다. 이들은 이전과 같이 친구들과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예배실에도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작아도 조금만 더 넓히면 따닥따닥 붙어서라도 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2)

>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예배드리거나 친구들 조금 모이면 예배할 맛이 안 난다고 해야 할까?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오던 친구들이 안 오면 걱정도 되고.. (연구참여자 4)

(2) 수련회/성경학교 참석의 목마름: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어라~”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험했거나 그 이후에 바라는 의미있는 교회 프로그램으로 선택한 것은 수련회/성경학교였다. 일상을 벗어나 친구

들과 함께 놀이하고 밤을 함께 보내는 경험(연구참여자 2, 5, 9),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특별한 시간을 원하는 친구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

> (Q MT 가면 뭐가 좋아요?) MT 가면은 늦게 자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해요. (연구참여자 5)

> 저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 갔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었는데, 2-3번은 갔었을텐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고 있어서 아쉬워요. (연구참여자 9)

> 일단 여름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다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같이 자고 그런 것 없고 찬양하고 간단한 게임하고 끝나니까 많이 아쉬워요. (연구참여자 2)

> 겨울성경학교인데요. 예배, 찬양, 공과시간 좋았고요. 선생님께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좋았었어요. (Q 겨울성경학교는 어디 가서 한 거예요?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했고요. 겨울성경학교에서 말씀 읽기도 했어요. (연구참여자 1)

(3)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향한 목마름: "Fun, Fun, Fun!"

어린이들이 교회에 바라는 바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다(연구참여자 1, 2, 4). 반면에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이고 행사나 놀기 위해 가는 곳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

> 교회에 못 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보여주거나 퀴즈, 빙고 게임 등이요. (연구참여자 1)

> 저는 다 좋은데... 지금도 좋고 다른 거 해 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재미있는데 더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4)

> 교회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곳이지 행사를 하고 놀러가는 곳은 아니니까

교회 가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니까 더 바라는 것은 없어요.
(연구참여자 3)

기타 의견으로 부모님이 목장모임을 할 때 자녀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즐긴다는 의견이 있었다(연구참여자 1, 7). 어린이들은 '꼬마형'이라는 성경이야기를 들려주는 유투브 함께 시청하거나(연구참여자 1) 낙서를 하거나 배경화면을 바꾸거나 아빠 사진을 몬스터로 바꾸는 등의 장난을 즐기는(연구참여자 1, 7)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그룹 공동체 활동과 공통된 즐거움 공유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긴 설교를 줄여달라는 의견과 전세대 예배 시 우는 아기들을 돌봐달라는 의견도 있었다(연구참여자 5).

V. 논의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 또는 학자들의 주장과 비교하며 논의하도록 한다. 연구참여자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한 변화는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사라진 놀이·여유로운 일상과 무기력함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변화, 비대면 수업 실시와 많아진 규칙과 제약을 포함하는 학교생활의 변화, 친구·선생님·부모님·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려워진 대인관계의 변화, 비대면 예배 실시와 가정예배 실천을 포함하는 신앙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 등이다. 어린이들의 바람은 여행 가기와 놀이의 회복을 포함하는 일상에 관한 바람, 대면 수업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에 관한 바람, 대면 예배로의 복귀·수련회 회복·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신앙에 관한 바람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제안한 변화와 바람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본 장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은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QR코드 및 손 소독제 사용, 식사

시 대화 금지, 거리 두기 유지 등의 감염예방 지침을 실천하였고 이것을 실천하고 통제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어린이들은 경우 금지 및 통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새로운 규칙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천하게 되었기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금지, 대화 금지는 도전적인 분위기를 유발하게 되었다(김현수, 2021, 48). 기타 내용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쪘다는 내용과 영상 수업을 많이 해서 시력이 저하되었음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고한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눈의 건조, 신체적으로 힘듦, 어지러움, 체중 증가를 언급한 바 있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완성 · 박종환 · 임영미, 2021)

어린이들이 경험한 코로나19의 일상 변화는 놀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코로나19 이후 하고 싶은 일로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친구와 놀고 싶다고 언급한 바람과도 연결이 된다. 학자들 역시 놀이를 친구 맺기와 연결한다(김경희, 2021; Ostroff, 2020). 어린이들은 학습을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놀이가 필요한데(Ostroff, 2020), 코로나19는 친구들과의 만남과 놀이를 동시에 빼앗아갔다(김경희, 2021). 놀이에는 상상력와 창의력을 확장시키는 인지적 기능 외에 규칙을 협상하고 힘을 분배하고(sharing power) 기어를 전환하고(switching gears) 다양한 역할을 시도해 보는 등의 사회적 기술의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Ostroff, 2020). 또한 놀이는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고 실험하고 상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다(Defending the Early Years, 2020).

연구참여자 어린이 중 몇몇은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무기력함이 느껴진다고 심정을 호소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제대로 한 것이 없어 바보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연구참여자 3)라고 표현했는데, 선행자료에서도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우왕좌왕하면서 별로 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하였다(김현수, 2021, 47). 본 연구자

는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불편한 생활의 지속,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려움, 비대면 수업과 예배로 인한 소통의 단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 혼합되어 이와 같은 감정이 유발되었다고 추측한다. '심리적 방역'라는 표현이 있듯이, 어린이들의 마음이 만져지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치료책이 되어야 하고 또한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린이들은 비대면 수업을 코로나19 시기의 주요 변화로 들었으며 이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윤희와 김순미(2021)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이 꼽은 원격수업의 어려움은 온라인 접속 오류나 지연 문제, 집중력 유지의 어려움,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될 때 곧바로 질문하지 못해서 학습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초등학생의 집중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 원격수업은 선생님과 눈을 맞추거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어 스스로 학습을 관리해야 하는데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연구대상의 발달단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 바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전의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박완성 · 박종환 · 임영미(2021)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며 그들이 인식한 효과적인 수업은 선생님께 질문하고 즉석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수업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연구결과에서(박완성 · 박종환 · 임영미, 2021) 지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할 시의 문제점으로 시기별 의례(rituals)와 행사의 생략과 사회·정서 발달의 지연을 들었다. 입학식과 졸업식, 학급 총회, 회장 선거, 축제, 운동회, 소풍, 체험학습 등의 학교 행사들이 모여 공통의 리듬이 형성되는데 어린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누리지 못함은 큰 손실이다(김경희, 2021; 하지현, 2021, 46). 아울러 학교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생활습관, 친구 맺

기, 식습관 교육 등이 어렵게 되면서 이러한 공백이 사회·정서 발달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경희, 2021).

코로나19 시기에 어린이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규칙을 강조하시는 보다 엄격하신 선생님, 친구를 사귀거나 함께 놀기 어려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부모님, 형제자매와의 갈등 등이 도출되었다.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은 어른 중에 부모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존재인데(하지현, 2021, 45), 새롭게 부여된 규칙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학급의 분위기는 어린이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이다(김현수, 2021, 4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친구를 사귈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나타냈다. 학교의 폐쇄와 정지로 인해 어린이들은 많은 기회와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을 공유하고 뒹굴 친구를 잃었다. 코로나19의 외현적 결과는 학교에 못 가는 것이지만 그 이면의 핵심은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기에(김현수, 2021, 99) 이 영향은 다른 어느 충격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잔소리를 듣는 어려움을 고백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에게 나타난 생활 변화로 친구와의 교류와 부모와의 관계 변화를 제시한 결과와(박완성 · 박종환 · 임영미, 2021)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물면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잔소리를 듣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평가를 듣는 아이들은(김현수, 2021, 47)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아울러 언니 · 오빠의 도움을 받거나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형제로 인해 불편한 경우도 있다. 김현수(2021, 102)도 형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와 형제가 있어 더 괴로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관계가 나쁜 경우에는 오랜 시간 밀착되어 지내는 것이 고통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참여자 어린이들이 언급한 신앙생활의 변화는 비대면 예배와 가정예배가 실시된 점이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의 어려움인데(김경희, 2021; 이은경, 2020), 쌍방 간 소통이 아닌 일방적

소통은 어려움을 유발한다(이은경, 2020). 선행연구자들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신앙교육의 축이 옮겨져야 함과 가정예배의 회복에 대해 강조하였다(유선희, 2020; 이은경, 2020; 이현철 · 문희랑 · 이원석 · 안성복, 2021, 48; 최은택, 2020). 등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출근이 재택근무로 바뀌었듯이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뉴노멀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는 하나, 온라인 예배는 그동안 잘 실천되지 못했던 가정예배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은경, 2020). 어린이 신앙의 영역에는 예배, 선교(Choun & Lawson, 1998), 주일학교(Blanchette, 2019), 제자훈련(Jackson, 2016; Lanker, 2019)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한국교회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맥락에서 예배만이 의미 있는 결과로 도출된 것은 특이한 점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경험한 어린이들은 답답함, 속상함, 분노, 짜증 등 자신들의 부정적인 심리를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은 불확실성과 조절 불가능성인데, 코로나19 상황 역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조절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기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하지현, 2021, 23-24). 연구참여자 1의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해요"라는 표현이 이 주장의 뒷받침을 받는다.

어린이들이 신앙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바는 대면 예배의 회복, 성경학교/수련회 실시, 그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원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요구는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으로, 또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대면 예배와 수련회를 기대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소통, 친밀성, 공동체 내의 경험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체와 하나됨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특성을 드러내고 회복할 있는 프로그램은 기독교교육에서 장려될 필요가 있다(라영환, 2021; Kim & Suh, 2021).

기독교교육자들은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린이

들이 성경을 듣고 싶고 좋아하도록 가르치라고 강조한다. 성경은 성인에 의해 기록되고 성인을 위한 성인의 책으로 예언서, 시가서, 신약의 논리적인 가르침들은 어린이의 이해를 넘어선다. 로빈스(Robbins, 2016)은 학습의 7가지 법칙을 소개하면서 '학습자는 배울 내용에 흥미를 느껴야 한다'는 제2법칙을 강조한다. 성경을 가르칠 때 어려운 부분은 학습자가 성경을 듣고 그 내용과 상호작용하도록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를 통해 이제껏 교회교육에서 실시한 것과 구분되는, 어린이들이 듣고 싶은, 성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준비하고 가르칠 과제가 기독교교육자들에게 부여되었다. 이 시기는 교회교육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려낼 절체절명의 순간으로(Kim & Suh, 2021) 교회교육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이다(이현철 · 문희랑 · 이원석 · 안성복, 2021, 50).

I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신앙을 가진 어린이들이 경험한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변화와 심리상태에 관심을 가짐으로 시작되었고, 초등학교 3 · 4학년 어린이들의 스토리를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세계와 목마름을 읽으려고 시도하였다. 어린이들은 일상생활 중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 놀이의 상실, 여유로운 일상과 함께 무기력함을 경험하였으며,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수업을 받았고 많은 규칙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제약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관련해서는 비대면 예배와 가정예배를 실천한 경험이 있으며 코로나19에 관해 분노를 비롯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어린이들은 여행, 놀이, 대면 수업과 대면 예배, 수련회로의 복귀를 희망하였으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희망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원치 않는 강력한 경험을 만들어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자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

해 고민하고 실천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스트로프(Ostroff, 2020)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어린이들이 친구, 선생님, 교육공간을 그리워하고 있기에 그들의 학교생활을 즐겁고(playful), 자유롭고(free), 협력적 방법(collaborative ways)으로 세팅하여 진정한 학습이 최대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오스트로프(2020)의 제언을 수용하여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는 그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노력을 인식하고, 마음을 읽고 존중하며, 그들이 그리워하는 학교와 교회에서 즐겁게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강희숙 (2021). 코로나-19 신어와 코로나 뉴노멀. **인문학연구, 81,** 115-138.

[Kang H. S. (2021). Corona-19 neologisms and Corona new normal. *Journal of Humanities, 81,* 115-138.]

김성원 (2020). 유아가 인식하는 신앙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3,** 283-315. DOI: 10.17968/jcek.2020.63.010

[Kim, S. W. (2020). A qualitative study of the young children's perception of fait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283-315.]

김경희 (2021).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어린이 미래교육의 방향성. **방정환연구, 5,** 13-33.

[Kim, K. H. (2021).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for children in response to the Corona 19 disaster. *Research on Bangjunghwan, 5,* 13-33.]

김현수 (2021).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서울: Denstory.

[Kim, H. S. (2021). *What children lost because of the Coronavirus.* Seoul: Denstory.]

라영환 (2020). 언택트 시대, 새로운 기회. 권순웅, 김수환, 라영환, 방성일, 유은희, 함영주, 허계형(편).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 (pp. 16-44). 부천: 들음과 봄.

[Ra, Y. H. (2020). Untact times, new opportunities. In. S. W. Kwon, S. H. Kim, Y. H. Ra, S. I. Bang, E. H. Yoo, Y. J. Ham, & K. H. Huh (Eds.), *Post COVID-19, designing church education* (pp. 16-44). Bucheon: Listening and Hearing.]

박성환 (2021). 포노 사피엔스(Phono-Sapiens) 시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린이 설교. **복음과 실천신학, 59,** 173-207.

[Park, S. W. (2021). Preaching for children by using smartphone in the era of Phono-Sapiens. *The Gospel and Praxis, 59,* 173-207.]

박완성 · 박종환 · 임영미 (2021). 코로나19로 실시한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707-728.

[Park, W. S., Park, J. H., & Lim, Y. M. (20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online class experience.e conducted with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2), 707-728.]

유기웅 · 정종원 · 김영석 · 김한별 (2021).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서울: 박영 STORY.

[Ryu, K. U., Jung, J. W., Kim, Y. S., & Kim, H. B. (2021).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revised ed.). Seoul: Pak-Young STORY.]

유선희 (2020). 코로나19 시대, 가정에서의 어린이 신앙교육. **교육교회, 499,** 10-16.

[Yoo, S, H, (2020).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at home during COVID-19 era. *Educational Church, 499,* 10-16.]

이민형 (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한국 개신교 신앙 지형 연구: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3**, 943-972.

[Lee, M. H. (2021). The study of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under COVID-19: Focusing on the result of the survey of Korean Christians' perception on the major issues of the year of 2020. *Theology and Praxis, 73,* 943-972.]

이은경 (2021). 언택트 시대의 예배와 신앙교육: 비대면을 넘어 다면(multi-faceted) 교육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6,** 295-322.

[Lee, E. K. (2021). Worship and faith education in an untact society: Toward multifaceted education beyond the untact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6,* 295-322.]

이정관 (2020). 21세기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기독교교육논총, 64,** 81-107.

[Lee, J. G. (2020).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81 - 107.]

이현철 · 문희랑 · 이원석 · 안성복 (2021). **코로나 시대 청소년신앙 리포트.** 서울: SFC.

[Lee, H. C., Moon, H. R., Lee, W. S., & An, S. B. (2021). *The COVID-19 period, youth faith report.* Seoul: SFC.]

장화선 (1999). 신앙면담을 통한 교회 어린이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연구, 4,** 279-298.

[Chang, H. S. (1999). A Study on the children's church education through faith interview.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 279-298.]

장화선 (2002). 어린이 신앙발달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8,** 155-185.

[Chang, H. S.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ait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8,* 155-185.]

정익중 · 이수진 ·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Chung, L. J., Lee, S. J., & Kang, H. J. (2020). Changes in children's everyday l ife and emotional conditions due to the COVID-19 pendemic. *Journal of t 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9*(4), 59-90.]

주석진 (2021).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변화가 아동과 보호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0**(2), 67-99.

[Ju, S. J. (2021). Effects of life changes due to COVID-19 on the mental healt h of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Focus on Busa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70*(2), 67-99.]

최은택 (2020).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 모형: 비블리오 드라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3,** 91-120. DOI: 10.17968/jcek.2020..63.004

[Choi, E. T. (2020). A study of the model Christian familial-spiritual education for the era of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91-120.]

하지현(2021).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파주: 창비.

[Ha, J. H. (2021). *Post-Corona, take care of the children's hearts first.* Paju: C

hangbi.]

Blanchette, L. B., Jr. (2019). Ministry with children. In F. Cardoza (Ed.). *Christian education: A guide to the foundations of ministry* (pp. 226-238).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Choun, R. J., & Lawson, M. S. (1998). *The Christian educator's handbook on children's ministry: Reaching and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Defending the Early Years (2020). Guidance for supporting young children through COVID-19. 1-12. retrieved from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609114.pdf

Jackson, A. (2016). The contribution of teaching to discipleship. In T, Linhart (Ed.). *Teaching the next generations: A comprehensive guide for teaching Christian formation* (pp. 3-13).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Kim, S. W., & Suh, E. S. (2021). Educational ministries in Korean churches amid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5,* 103-131.

Lanker, J. M. (2019). Discipleship. In F. Cardoza (Ed.). *Christian education: A guide to the foundations of ministry* (pp. 161-172).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Ostroff, W. L. (2020). Teaching young children remotely. *Educational Leadership, 78*(3), 20-25.

Robbins, D. (2016). Teaching the Bible so young people will learn. In T. Linhart (Ed.). *Teaching the next generations: A comprehensive guide for teaching Christian formation* (pp. 211-228).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xperience and Expectations of Christian Children Regarding COVID-19

Sung Won Kim

Assistant Professor, 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ducational directions by exploring the stories of changes and expectations experienced by Christia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r this purpose, nine third- to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ttending the church,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changes and expectations regarding COVID-19. The results identified five areas of experience: daily life changes, school life chang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s, religious life changes, and emotional changes during the COVID-19 period. Daily changes included infection prevention, missing play, leisurely routine, and lethargy. Changes in school life included loss of face-to-face classes and various rule requirem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s included the difficulties in forming relationships with friends, teachers, parents, and siblings, and religious life changes included loss of face-to-face worship and the restoration of family worship. Various negative emotions were expressed. Analysis of the participants' expectations showed in daily life they wanted to travel and play, return to pre-corona school life, return to face-to-face worship, restore retreats, and develop fun programs as religious life expectations. Based on these children's experiences and wishes, the study suggests that educators need to recognize children's efforts during the COVID-19 period, read their hurt feelings, and develop church programs that include communication, community, and fun elements.

《 Keywords 》

COVID-19, Christianity(faith), children, interview, qualitative study

- 투고접수일 : 2021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29일